

## 제주 화장품산업 새 먹거리 부상

미래형 전략산업... 도, 대표 제조업 육성 본격화  
마케팅 강화·해외기업 대상 투자유치 등 잔걸음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순항 속 수출국 다변화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화장품 산업을 제주의 대표 제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 본격 추진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화장품 산업을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화장품 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건축허가 완료에 따른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2019 제주 천연화장품 및 뷰티박람회 개최를 통해 상품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11월 4-8일) 프랑스 파리에서 민관합동 제주 화장품 홍보 및 해외기업 대상 투자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제주 화장품 및 식품이 포함되면서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에 날개를 달았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혁신도시와 산업경쟁력을 갖춘 산업거점단지 등을 연계해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산·학·연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국비 71억원을 투입해 아모레퍼시픽, 테라젠이텍스,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학융합원 등이 참여하는 R&D 사업(유전체기반 맞춤형화장품 개발)을 진행했다.

이같은 사업들이 나뉘며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제주 화장품이 수출주력 품목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제주테크노파크가 '2019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글로벌공동사

업'을 통해 우수 기술 이전과 사업화에 성공한 제주기업과 함께 지난 9월 24일과 26일 우주베이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우수기술제품의 해외바이어 매칭 상담회를 개최하고 2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수출국가도 동남아권 등으로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 등에서 판단하고 있다.

제주세관이 집계한 '2019년 3분기 제주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향수 등 화장품의 수출금액은 2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2% 가량 증가했다.

화장품 산업이 제조업 비중이 낮은 제주에서 활성화될 경우 산업구조 재편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7월 민선 7기 취임 1주년 회견을 통해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 확보를 위해 전기가 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화장품을 포함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26일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2019 NIE 공모전'과 '제7회 제주NIE대회'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전시회 '성료'

26-27일 제주학생문화원서 열려  
공모전·NIE대회 시상식 등 진행

'NIE, 제주를 품다'를 주제로 한 '제11회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전시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7일 폐막했다.

'NIE 전시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도움을 받아(주)한라일보사와 제주NIE학회 공동 주관으로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제주지역 학생들의 비판·창의·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담아낸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교육)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기도 하다.

지난 26일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2019 NIE 공모전'과 '제7회

제주NIE대회'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 개막식에는 JDC 임춘봉 경영기획본부장, 한라일보 이용근 대표이사, 제주NIE학회 이현화 회장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제주도청 평생교육과 홍창진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춘봉 JDC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한라일보와 제주NIE학회를 비롯해 교육계가 같이 협력했기에 지금까지 잘 성장해왔다"며 "NIE는 아이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제주를 빛낼 인재로 커나가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용근 한라일보 대표이사는 "NIE 전시회는 청소년과 어른이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즐거달라"고 말했다.

이현화 제주NIE학회장은 "한 문장 한 문장 최선을 다해 비판적 사고력이 담겨져 있는 아이들의 날카로운 지적들을 함께 읽어달라"고 당부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축사에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판적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 등을 갖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와 신문 읽는 것"이라며 수상자들이 앞으로 신문을 통한 창의력 향상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시회에는 한라일보가 진행한 '2019 NIE 공모전' 수상작과 자연연재물, 제주NIE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주NIE대회' 수상작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완성된 학생들의 활동작품들이 전시됐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JDC 농어촌출연기금 대폭 확대

9년간 총 60억 규모... 올해 첫 50억원 출연  
1차산업 경쟁력 강화·농업경영 안정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태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JDC)의 농어촌출연기금이 6년만에 50억원으로 확대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역농어촌기금 50억원을 지난 22일 출연했다고 27일 밝혔다.

JDC의 농어촌기금 출연은 10억원

씩 이뤄져오다가 이번부터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이다.

JDC 출연금 확대에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농어촌기금으로 출연하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용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DC는 지난 2010년부터 농어민 저금리융자 지원을 통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업경영 안정 도

모 지원을 위해 JDC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출연해 오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수익금을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농어촌기금 조성 출연이 가능한 제주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JDC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기금 출연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60억원이다.

앞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수요 급증으로 이차 보전액 지출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부터 JDC에 매년 농어촌기금 조성 출연금 50억원 확대 출연을 요청했다.

그러나 JDC는 국토부 감사 당시 농어촌기금 출연을 놓고 지적을 받으면서 출연금 확대에 따른 논란이 있었다.

조상윤기자

## 전 세계 29개 도시 청소년들 제주로...

제주자치도, 오는 31일부터  
제10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전 세계 29개 도시 청소년들이 제주에 모여 평화를 이야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제10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유엔환경연구소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와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자리다.

올해 포럼의 대주제는 '도전에 대응하는 글로벌 책임-평화 구축과 유지에 있어서 세계 젊은 지도자들의 역할'로 정해졌다. 전 세계 29개 도시에서 참가하는 청소년 157명은 8개 팀을 구성해 학교폭력, 빈곤 감소와 평화 구축, 이념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젠더 및 비폭력 운동을 주제

로 열린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평화문화탐방, 케이팝(K-POP) 배우기, 문화의 밤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 안내와 진행은 제주 청소년들이 맡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평화의 섬 제주가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이 자신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국제 교류의 네트워크 거점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3면... 아파트 재건축 줄줄이 제동 / 5면... 속도 못내는 '기적의 놀이터'

감귤산업 50년 미래감귤 50년  
제주감귤 100년의 가치

# 제주감귤 박람회

2019. 11. 8 (금) ~ 12 (화) 10:00~17:00  
※11. 8 ~ 10일 (3일간) 10:00 ~ 20:00 야간개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

**100년을 느끼다** (만남의 광장, 직거래장)  
**함께 성장하다** (제주감귤홍보관, 제주농업관, 컨퍼런스)  
**빛을 밝히다** (감귤 숲길, 굴림추색 돌담길 걷기)  
**가치를 나누다** (산업전시관, 농기자재전시장, 우수감귤품평회)  
**하나가 되다** (감귤푸드존, 예술황감제, 금물과원 퍼포먼스)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kotra, 제주관광공사, AKEI 한국천문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농림중앙회, (사)제주감귤연남회, 제주상공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